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다시 듣는 기쁜 소식” (Rehearing of Good News)

■ 요한복음 5장 24-29절

여러분들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절)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연세계가 우주만물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우주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우주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인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창조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3. 하나님은 창조 그 이전부터 한 존재를 마음에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그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창3:5절).
5.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롬3:23절, 6:23절a).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또 다른 표현은 “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삶,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것은 그저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히9:27절).
6. 인간은 이런 자신들의 운명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구원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달 불가능한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위해 어떤 다리들을 놓았을까요? 첫째는 지혜의 다리입니다(고전1:21절), 둘째는 의로운 다리입니다(딤후3:5절), 셋째는 율법의 다리입니다(롬3:20절), 넷째는 종교의식의 다리입니다(고전1:17절).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오직 한 길 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롬5:8절, 요14:6절).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요5:24절).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골1:6절).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요1:12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또한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맺는 말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전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903호
유아부(13개월-4세)	II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III 부 (50대)	오전10시 401호
				IV 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III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V 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유년부	오전 10시	701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에바다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II 부	오후2시 603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새 가 족 부	I 부	오전10시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II 부	오후12시40분 602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4시	501호		III 부	오후3시20분
청년1,2부 토요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702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소요리문답부		오전10시,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 I·II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환상 황광 박종민 문정훈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혜영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곰·주한나, 이시라, 권요셉·조에스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키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일
(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만대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자·김민규(우크라이나), 허창벽·현미순(일본), 김광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타티코노동자), 구희숙(학원선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Joshua Cho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116:1-2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21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Bok Kyu Lee
Hymn	298(35)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Luke 1:39-55	Presider
Member's 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The old time Religion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Sermon	Leaping for Joy	Rev. Joshua Cho
* Hymn	159(149)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Leaping for Joy

Luke 1:39-55

Summary of the sermon

Sometimes, life can be depressing. We work hard, but our co-worker gets a promotion. We study hard, but the cheaters get the good grades. Everyone seems to live by Darwin's rule, "survival of the fittest." But, even when depravity is all around us, we can find joy in the gospel. We must leap and sing for joy, because God has revealed the great reversal of the gospel in Jesus Christ.

First, God reveals the reversal exclusively. Even though Mary's pregnancy was not showing, both Elizabeth and the unborn fetus John recognized Jesus. She responded, "Why am I so favored?" When we are granted illumination to see Jesus in Scripture, we have to rejoice because the Holy Spirit has shown favor to our otherwise blind eyes. Next, God reveals it personally. In response to Elizabeth, Mary rejoiced with a song, celebrating God's work in her lowly life. She drew from OT names like Savior and Mighty One, creating a new song. Likewise, we should study the names of God in Scripture. When we experience God's mercy anew, old names can become new songs. Finally, God reveals it universally. Mary's song shifted from personal to international. Just as God had lifted her up, He would lift up humble nations and bring down proud rulers. What a dangerous baby! This radical reversal was depicted most clearly when God the Son humbled himself on the cross, only to be lifted up again from the grave.

This is God's paradigm. God will humble arrogant countries like North Korea. God will also humble South Korea and the U.S., if we don't repent. This is also how God deals with churches. Like Laodicea (Rev. 3:14-22), He will spit out any prideful church. This is also how God deals with us. We must hunger for Christ like poor beggars. Then, we can leap for joy, because we know that God, who loves the humble, will lift us up in Christ!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All Sunday Bible classes are cancelled today, due to the retreat over the weekend.
- We praise God for the wonderful retreat we just had. Let's share the love that God has shown us in Christ! We want to thank all the teachers and servants who sacrificed their time to make it possibl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한상은 목사	한상은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문정훈 목사	임훈교 장로
III 오후 2시	유문건 목사	홍성주 장로

오후 5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인 도 자
찬 송	다 합 께
기 도	김승록 집사
찬 송	다 합 께
성 경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율법의 늪에서 은혜의 강으로”
특별찬양	말 고 는 자
* 찬 송	다 합 께
* 축 도	다 합 께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1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설교 노현상 목사

기 도	I부: 고정숙 권사, II부: 김수호 권사
성 경	삼상 17:41-51
찬 양	인 도 자
설 교	찬 양 대
	“다윗”
	설 교 자

세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파ian리스트: 한현수·홍해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 정수길 목사

금 요 기 도 회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구경연후로 인하여 개인기도로 드립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운연	유네원	김윤지2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L. V. Beethoven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내 혼아 주 찬양	Caleb Simper	류종기	강민정1	양경실	이희진
찬양예배	베들레헴	사도신경	Ivan D. Genuchi	김낙현	오신옥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The old time Religion	John Carter	심상희	차주연	이승민1	
수요 I부	은 빛	나는 영광 또 오매가	E. J. Lorenz	박래경	김윤지2	홍해란	
수요 II부	시 은	나를 인도 하소서	R. Emerson	백경화	이순제	변지원	

<현금송>

I부	최 유 현	살아계신 주	William J. Gaither			조현정	
II부	고 성 진	내 주의 보혈은	Valerie W. Stephenson			김양언	
III부	아멘관악단	주님 님가 원하네	Ken Barker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현희	13-31	사라	박이선/이흥숙	김남희	13-10	루다아	박이선/최유진	하대선	1-22	고등부	이소연/최유진
조봉자	11-8	사라	육순자/김정자	이영정	11-8	청년부	육순자/김정자	이성현	16-12	고등부	윤재진/곽미숙
이유식	11-8	아삭	육순자/김정자	이유정	9-7	발립	임명숙/육순자/박인규	김민석	11-8	중등부	임명숙/한민아/이영진
김재민	9-12	연호아	박성미	박은미	9-7	도르카	임명숙/육순자/박인규	조은아	교 육 1 년	초등부	박이선/최유진
이대선	9-12	에스더	박성미	박은진	14-18	청년부	본인	김기현		초등부	박이선/최유진
유호준	13-31	마리아	박이선/이흥숙	장민수	13-31	대학부	박이선/이흥숙	이성민		초등부	윤재진/곽미숙
정오규	13-31	바울	박이선/이흥숙	김승희	5-13	대학부	박정임/윤기장	김기윤		유년부	박이선/최유진
조성숙	16-12	루다아	윤재진/곽미숙	김소연	9-7	대학부	본인	이혜진		유년부	임명숙/육순자/박인규

☞ 앞면에서 계속

10.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당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11. 상담 안내 / 범품, 재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2.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1-9759-2299

☐ 장례

1. 故 김기상 장로 (15교구 김옥현 집사 부친, 문정원 집사 시부) / 29일(토) 별세 31일(일) 발인



2011 겨울성경학교·수련회

■ 흥회 주제 :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교회"(신 6:4-9, 마 28:18-20)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0(주일) ~2.22(화)	서울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우리가 다음세대 하나님의 일꾼이예요!	박진아 목사
유년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김만성 목사
초등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서명철 목사
사랑부	2.13(주일)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예요!	문정훈 목사
청년1부	2.28(월) ~3.1(화)	아가페타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오로!	박노철 목사 강석남 목사
청년2부	2.25(금) ~26(토)	아가페타운	새로운 기도로 거듭나자!	박노철 목사 형 광 목사
예배다	2.26(토)	서울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2(토)	아가페타운	성숙한 가정을 위한 신혼가정의 과제	박노철 목사 한상은 목사

「★」 표시가 들어간 부서는 금주에 겨울성경학교·수련회가 열립니다.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
너
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빙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